믿음은 신념의 마력 따위와 무관하다

(히11:1~3)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신념의 마력 따위와 무관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은 신념의 마력 따위와 무관하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에서는 특히 개신교 기독교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꽤 인상 깊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언제냐 하면, 최근 2013년 6월30일 주일입니다.
미국에 수정교회 아시죠,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가, 2013년 6월 30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가톨릭으로 그 교회자체가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렸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30여년간 목회를 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은퇴하시자, 자녀들 간에 이 수정교회의 지도력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다투는 와중에 교인들은 줄고, 그만 재정적으로 이 교회를 지탱할 수 없는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절차를 겪고 가는 중에, 2013년에 가톨릭으로 넘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예배당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예배당인데, 그게 가톨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안타까워 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요.
뭘 생각하게 하냐 하면,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독교 세계 안에서.

근데 이분의 설교가 샘솟듯이 솟았던, 이분의 설교를 가능하게 했던 신학사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신념의 마력이에요, 너무 어처구니없게도.
왜 이걸 제가 잘 아느냐 하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의 아버지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실 때에, 원래 믿는 집안에 계셨지마는 아버지 스스로가 믿음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팬이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에 저랑 계속해서 그 대화를 나누고 말다툼 아닌 다툼을 했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hour of power(능력의 시간)라고 하는 TV 설교방송을 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퍼져나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된 설교의 핵심 내용이 '신념의 마력'인데, 신념의 마력이라는 게 1932년에 '클라우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기자 출신 한 분이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써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TNT 지구를 흔드는 힘' TNT가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이 지구를 흔드는 힘, 이게 신념의 힘인 거예요, 신념의 힘.
이 신념이라는 게 도대체 실천적으로 어떤 걸 말하느냐?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만일의 경우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집요하게 되풀이 하고 되풀이 하여 마음에 영상을 그린다면, 그 모든 영상은 생애 중에 반드시 구현된다.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을 그려넣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한다.'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든 것 중에 그 베이비 루스가 있어요, 이 홈런 왕 베이브 루스.
이 베이브 루스는 배터 박스에 들어설 때, 저~기 멀리 조명등이 있으면 '그 조명등 어디쯤에다가 공을 내가 맞추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배터 박스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쳐서 결국 홈런왕이 됐다 그러는데, 베이브 루스가 홈런 친 것보다 삼진아웃이 더 많은 거 여러분 아시지요?
어쨌든 이런 예를 들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날마다 그것을 나한테 암시하는 겁니다.
나는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미녀대회에 나가서 1등할 거야, 나는 무엇 무엇을 이루고 말거야.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암시를 주고, 이 자기암시가 신념이 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이, 패배자로서의 인생, 낙오자로서의 인생, 별 볼 일없던 인생, 이 모~든 것이 다, 다이너마이트로 터져 나가듯이 깨져 나가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이러한 책을 써 가지고 사람들이 열화와 같은 요구에 응해서 쓴 책이 1948년에 나온, 아직까지도 읽히고 있는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입니다.
'The Magic of Believing'
그리고 그 48년에 나온 책 이후에 나온, 2014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자기계발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의 아류입니다.

예를 들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지요? 이거 '신념의 마력'의 아류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사상도 그렇고, 오스틴 목사라는 사람의 긍정의 힘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아류의 차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지금도 이 신념의 마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거기에 머무르면서 설교하고 아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베이비 루스나 이 클라우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이분이 예를 든 아놀드 파마 같은 분들이 지금은 그만 사그라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모하메드 알리나.
아놀드 파마도 골프공을 치려고 클럽을 잡을 때면 골프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마음에 그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로.
그래서 아놀드 파마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80년 90년, 80살 되고 90살이 되도록 내가 세계 제1일의 골퍼로 유지하고 남아 있겠다는 신념은 왜 못 가진 것입니까?
나이라는 것도 신념으로 넘어야 될 장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꼬집으려고 말하는 비판쟁이 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념의 마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릇된 사상을 받아들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전 세계에 기독교의 세계에 미친 악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줘야 될 문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신념의 마력을 회상시키는, 연상케 하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신념이라는 말로 얼마든지 바꿔서 대치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바로 이 신념의 마력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신념의 마력에서 얘기하는 사상을 되풀이 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수없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거 웬일입니까?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음은…' 하고 이야기를 11장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써 왜 이 믿음을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어야만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취하고 싶은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10장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1학년 된 아들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와 가지고 '너 대학교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가 조그만 자동차 하나 사 줄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자동차를 지금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오셔서, 너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가 자동차 사 줄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아이가 대학교 입학시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산을 빼길 때도 너희가 기꺼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영원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이는 재산을 빼길 때에, 아~무런 안타까움 없이 빼기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뭐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게 됐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과 같은 거다, 이런 의미에서 실상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신념의 마력'에서 얘기한 대로라 그러면 이 세상이 너무 핑크빛 같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마음 판에다 그 그림을 그려 놓고,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너는 그것을 이룰 수 있어, 너는 그렇게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암시를 주고 신념을 강화시키기만 한다면, 난 반드시 그걸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신축성 있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너무나 딱딱하게 여지없이 구속되어 있고 얽매어 있는 믿음입니다.
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믿어!'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하인처럼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건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것으로 약속해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믿지 말라는 얘기에요.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이외의 것을 바라고 싶으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 오지 마요.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이외는 바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것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느냐?
영원 전에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의 하나의 상태로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기쁨과 영광을 다 나누어 갖도록,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내 것으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역사에 남을 지도자로서 기림을 받고 있지만, 그게 모세 것입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사도바울이 어마어마한 전도의 사역을 했지만, 그 전도의 사역자체가 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이 베드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 게 없어요.
그럼 사도바울 거와 베드로 거와 모세 거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거, 이거 약속받은 것 밖에 없어요.

거 왜 자꾸 교인들 앉혀 놓고 거짓말을 해요?
교인들 조금 더 끌면 그야말로 무슨 코미디언의 이야기처럼,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러지 마요, 제발 그러지들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도록 하신 것들은,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그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 것이 된다고 하는 믿음은, 하늘나라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신념의 마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있게 하는, 예를 들어 내가 재벌그룹의 회장이 된다, 지금 그 상황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음에 그리면서 신념을 갖고 나가면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있는 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고, 믿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도 마찬가지에요.

신념의 마력은 이 지상에서 일어날 앞으로 미래 일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마음으로 먼저 내가 보고 그리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지요.
신념의 마력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을 그려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을 내가 창조적으로 그림을 그려내서 보고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거,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손에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해가 뜨면 해 너머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별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뿐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그 소리가 있지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보입니다, 손에 있는 이 세균은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해가 지면 별이 보이고, 또 시야로 보는 거 말고,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멀리까지도 보입니다.
조건을 갖추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나라가 보이도록 조건을 갖추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손에 있는 세균을 보기 위해 현미경을 드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나라, 그러나 있는 그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보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을 가지면 아무나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느냐, 그게 아니지요.
이 기독교에서 믿음은, 손에 있는 세균들이 자기를 보이게 하려고 우리에게 현미경을 만들어 준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는 우리가 못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3D 영화를 들어갈 때 입구에서 3D영화를 잘 볼 수 있게 안경을 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있으신 당신 자신을 우리로 보게 하시려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내주신 3D 안경입니다.
신념의 마력에서처럼, 없는 상황을 마음에 그려가면서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의 여지가 전혀 없는 믿음입니다.
신념의 마력에서의 신념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 같은 신념을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주고 그래서 이루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내 팽개치심, 놔두심, 내버려두심이 임한 줄이나 아세요.
그 따위 마귀의 주술 같은 것을 가지고,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을 무리들 앞에서 입을 엽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 정말 수미산처럼 쌓여 있는 죄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자의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념의 이런 따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발서 읽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을 계발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들이 왜 자기를 계발하고 있습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요.
이게 바로 사실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이 믿음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의 자리, 예수님께서 차지하고 계신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믿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이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아버지와의 교제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지가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것으로 이 세상에서 신념을 갖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에 신념을 갖고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반복해서 암시를 주면 이룰 수 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어요.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 이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 말과 같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법을 그 때가 되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하겠다.'
바로 이게 그 얘기에요.
그리고 이 말을 빌립보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뜻을 내 마음에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법만 기록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요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근데 신념의 마력에서 말하는 것은, 신념의 마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고 나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소원을 이루고 나서 기뻐하라는 것이 신념의 마력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먼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약속해 주신 것에 상응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영원하신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걸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져도,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한 기쁨이 약속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걸 바라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기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믿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거니까, 그 기쁨을 앞당겨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소원을 써주시면, 하나님 소원인지 내 소원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써주실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재판정에서 분명히 살인죄가 일어나는 현장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있는데 못보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안경을 주셔가지고, 3D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념의 마력은, 없는 걸 보게 하는 겁니다, 없는 걸 보게 해서 있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요? 마력은 마력이에요.
그러나 그 따위의 마력이라는 건, 신앙하고는 0.01%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완전히 이단의 가르침이지요, 이단의 가르침.

믿음! 딱딱한 겁니다.
약속한 것만 연결돼 있고,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거 아무상관이 없는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아벨 그리고 에녹 아브라함 계속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 믿음, 약속한 것에 딱 매여 있는 믿음,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믿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내일부터 그 얘기가 펼쳐지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정말 잘 분별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믿음과 마귀가 속삭이는 신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